

# 올해 5·18기념행사 시민참여 대폭 확대

## ■ 행사위, 35주년 기조 방향 확정

### U대회·광복 70주년 행사 나눔·대동정신 실천 탈정치 방침속 일부행사 시국현안 변질 우려도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가 5·18 민주항쟁의 가치 정립과 5월 정신계승에 초점을 둔 시민주도형 추모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참여·평화통일”을 기조로 한 이번 행사는 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실천했던 나눔과 대동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행사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남북통일 문제 등 시국 현안에 중점을 두면서 자칫 5·18 행사 일부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행사는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1980년 5월에서 오늘로 이어지는 숭고한 민주주의 정신의 재조명에 초점을 뒀다”면서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광복·분단 70주년으로 이어지는 민주·참여·평화통일의 기조로 이어지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위는 다음달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전남, 서울 등 전국에서 시민참여형 축제를 비롯한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주년 기념행사, 동네 5·18 행사, 5·18 역사 왜곡 대응 및 남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제정, 세월호 1주기 행사, 생활 속 5·18 행사 등 6개 부문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위는 다음달 16일 세월호 1주기 도 시별 거점 행사를 시작으로 세월호 1주기 서울 국민대회, 추모리본달기, 오월길 순례, 전국노동자대회, 광주시민대회, 오월길 장작가오제, 마을단위별 주먹밥 행사, 동네 5·18 기념행사, 전야제 등을 치를 계획이다.

행사위는 특정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기존 틀에서 벗어나 탈(脫)정치, 탈(脫)이념적인 행사로 추진해 전국화·세계화를 앞당기고 5월 정신을 광주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사위가 일부 행사를 시국 현안 관련 내용을 담아 열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갈등의 장으로 변질 가능성도 높다. 이중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와 분단 70주년 및 광복 70주년 행사는 민주주의 정신 및 6·15 공동선언 재조명과 남북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국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기에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2010 민주대성회’에서는 각종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선언문과 시민·학생·각 단체의 입장 표명도 잇따를 전망이다.

행사위 관계자는 “80년 오월을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현하고, 시민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올해 행사기간 중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시국관련 이슈가 많은데, 일부 행사는 역사성을 계승하되 사회 문제를 5·18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24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경길(왼쪽 네번째) 상임행사위원장이 35주년 기념행사의 기조와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 무연고 사망 두배 가까이 늘어

### 지난해 49명...광주 65세 이상 사망률 전국 두번째

전남지역 무연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광주의 65세 이상 노인계층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내놓은 ‘2014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자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전남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2013년 25명에서 지난해 49명(96%)으로 급증했다. 또 신안군의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상위 18번째를 차지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2명(40%)으로 노

인계층 비율이 강원도(62%)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에선 전체 무연고 사망자 49명 가운데 성별 및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사망자도 20명(40.8%)이나 됐다. 또 64세 이하 사망자의 두 배를 뛰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춘진 의원은 “고독사는 더는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노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초등생 가방 등 21개 제품

### 허용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 국가기술표준원, 리콜 명령

학생용 가방, 필통,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21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완구 등 2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드러난 초등학생용 가방 7개, 필통 2개, 완구 10개, 아동용 섬유제품 2개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초등학생용 가방 7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74~386배 초

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4개 제품에서는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2.3~57.8배 넘게 나왔고, 1개 제품은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4.5배 초과했다.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가방 걸감에서 검출된 제품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도 있다.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연향뉴스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0, 해질 18:48, 달뜨기 09:57, 달지기 00:00

### 낮부터 추위 풀려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0/16	보성	맑음	-4/15
목포	맑음	0/12	순천	맑음	1/16
여수	맑음	4/13	영광	맑음	-4/13
나주	맑음	-4/16	진도	맑음	-1/13
완도	맑음	1/14	전주	맑음	-2/15
구례	맑음	-4/16	군산	맑음	-2/11
강진	맑음	-2/15	남원	맑음	-4/14
해남	맑음	-3/15	홍산도	맑음	4/9
장성	맑음	-4/16			



#### ◇비다 날씨

지역	구분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안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서부	안바다(서)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바다(서)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 ◇생활지수

수면	60
운동	70
빨래	90

#### ◇주간 날씨

날짜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4/1(수)
날씨	☀	☀	☀	☀	☀	☀	☀
기온	2/18	2/19	6/20	9/21	9/23	11/22	10/17

## 65세이상 노인들 신발에 '반사지' 부착

### 농촌지역 야간 교통사고 위험 줄인다

#### 전남경찰 '반딧불 사업' 진행

전남경찰이 야간에 잘 보이도록 노인들 신발에 반사지(사진)를 붙이는 '반딧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전남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발 뒤꿈치에 반사지를 부착할 수 있는 '반사지'를 제작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할머니·할아버지 신발에 붙여지는 회색 반사지는 가로 3cm·세로 2.5cm로 야간에 빛을 받으면 자연스레 빛나는 스티커이다.

경찰은 마을회관과 노인건강교실 등을 찾아가 직접 나눠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방문해 직접 붙여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남지역 21개 경찰서에 1만개의 반사지를 배포했으며, 후원을 통해 확보하게 될 2만장의 반사지를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반딧불 사업'은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총 427명 중 45%인 19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사망한 노인 76명(39.6%)은 도로변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오후 6시~오전 8시 사이 여두운 시간대 발생한 사고로 48명의 노인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전남지역 노인인구가 지난해 말 38만3038명으로 노인 비율이 20.1%를 차지, 농촌지역의 경우 가로등과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큰 만큼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200% 할인

##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교고등학교 옆)